

경북도, '지역특화 비자사업' 대폭 확대... 外人 1281명 유치

내년 9월까지 참여 外人 모집
한국어능력 2등급 이상 등 필요
인력난 사업체 도움, 장기정착 계기

경북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경북도는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참여할 외국인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줘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활동 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해 2022~2023년 290명, 2024년 387명의 외국인에게 도내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비자 발급을 추천했고, 올해는 지역우수인재(F-2-R) 781명을 배정받아 2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비전문취업(E-9), 선원



경북도청

취업(E-10), 방문취업(H-2)도 지역특화형 비자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이 신설되면서 500명 배정 인원이 추가돼 모두 1281명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대상은 지역우수인재(유학생)와 숙련기능인력(근로자) 및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가 대상이며, 지역 인재는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요건 등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특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들은 인구 감소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도지사 추천을 받아 관할 출입국에 거주(F-2-R)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은 최근 10년간 E-9, E-10, H-2로 2년 이상 체류한 등록 외국인 근로자로 현재 근무처에서 합

법적으로 근로 중이고, 연봉 26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2급 이상 요건을 갖추면 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2년 동안 거주하려는 외국국적동포와 비인구감소지역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도 추천 대상이다.

경북도는 이 사업이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하기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도 지역사회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 사업에 참여한 도내 산업계의 만족도가 높고, 사업지역에 정착을 시작한 외국인들도 미래가 생겼다고 좋아한다"며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순천시

日 관광객 여행지로 '인기'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여행업협회(JATA)가 공동으로 선정한 '한국절경 30선'에 순천의 대표 관광지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이 포함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절경 30선'은 일본여행사 한국상품 전문가가 대한민국 관광 공모전(사진 부문) 수상작 중 지역 접근성, 주변 관광지 연계성, 지역 대표 음식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호남 지역에서는 순천 3, 여수 1, 전주 1, 완주 1, 진안 1개소가 선정됐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광주시

미식의 도시 대표맛집 50곳 선정

광주시가 '미식의 도시'를 대표하는 맛집 50곳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보리밥, 육전, 돼지갈비, 꽃게장, 빈대떡, 생고기비빔밥 등 '2025 광주맛집' 50곳을 선정해 현판을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선정된 광주맛집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광주 미식 가이드'를 제작해 관광객안내소, 호텔, 주요 관광지에 비치할 계획이다.

'광주 미식 가이드'에는 맛집에 대한 설명과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휴무일 등 정보와 음식 사진 등이 수록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울산시

북울산역 환승체계 개선사업 준공

북울산역 일원에 버스, 택시 등 환승 시설 설치를 위해 추진 중이었던 북울산역 환승체계 개선 사업이 준공된다.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북울산역 환승 체계 개선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북울산역 환승 체계 개선 사업은 오도밸리리와 북울산역 간 진출입로 개설과 보행 육교 설치, 버스, 택시 등의 정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7억원 중 국비 21억원과 시비 66억원이 투입됐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남해군

'꽃 피는 남해' 행사 열린다

경남 남해군이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이해 오는 28~29일 '나의 살던 고향은'을 주제로 '꽃 피는 남해' 행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행사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춘 총렬사 광장 및 남해각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는 28일 오후 15시부터 시작된다. ▲국민고향 남해 오락관 ▲문화공연(바투카타, 통기타공연) ▲개막식 및 식전공연(삼동난타, 바투카타, 퓨전국악 황인아, 남해군 홍보대사 하동근, 남해대교 나이트) ▲드론 라이트 불꽃쇼가 펼쳐진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글로벌 사우스' 지역 포함 유망 6개국 대상 신시장 공략 박차

기존 美·中 벗어나 대체시장 진출
해외 전시회·무역사절단 지원 확대

부산시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포함한 유망 6개국(인도, 말레이시아, UAE, 우즈베키스탄, 독일, 이탈리아)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신시장 공략에 나선다.

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주요국 보호 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세계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미·중 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사우스는 기존 제3세계, 개발도상국 등으로 불리던 국가들의 새로운 분류로, 북반구 고위도에 있는 선진국을 칭하는 '글로벌 노스'와 대

비에 남반구 및 북반구 저위도에 분포한 나라들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포함한 유망 6개국에서 개최되는 해외 전시회와 무역 사절단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예산을 전년 대비 1억여 원을 증액해 운영한다. 오는 5월 태국 방콕 식품 전시회를 시작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등 유망 시장을 전략적으로 발굴한다.

또 시장 동향 분석을 제공하고 실질적 구매자 연결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부산 소상공인 수출 기업화 지원 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구시,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추진

4대 전략사업에 3000억 투입

대구시는 전통 주력산업인 섬유패션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해 대구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오는 2035년까지 첨단 섬유패션테크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섬유패션산업 고도화와 미래화를 위한 4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신산업 연계 Tech융합소재 육성 1000억원, ▲순환경제·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 고도화 1100억원, ▲파워풀 대구 글로벌 브랜드 구축 및

비즈니스 활성화 400억원, ▲융복합형 핵심 인재양성 500억원 등 4대 전략사업에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섬유패션 르네상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35년까지 5+T 핵심 선도기업(매출액 500억원 이상) 25개 육성, 섬유패션산업 생산액 10조원, 5+T 융합산업 수출액 30억달러, Tech리딩인재 1천명 양성을 달성하기로 했다.

섬유패션 르네상스는 지난해 11월 대구정책연구원이 세부계획안을 마련했고 대구시가 계획을 구체화해 섬유패션 르네상스 플랜이 만들어졌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포항시는 지난 7일 죽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매주 토요일 달마고도서 힐링해요"

오는 15일부터 한달간 진행

한반도의 봄이 시작되는 곳, 해남에서 봄맞이 걷기 축제가 열린다.

오는 15일부터 한달간 해남군 송지면 미황사와 달마고도 일원에서 '달마고도 힐링걷기' 행사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올해 달마고도 걷기 축제는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명사와 함께 걷기, 줍기 챌린지 등 4주간에 걸쳐 다양한 테마별 걷기를 운영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힐링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노르딕 워킹 체험도 마련해 즐거운 걷기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월 15일 첫 걷기 행사에서는 개막

식과 함께 글씨당 김소영 작가의 캘리그래피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22일은 명사와 걷기 프로그램으로, 세계 3극점과 7대륙 최고봉을 모두 밟은 산악인 허영호 대장과 함께 걷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명사의 경험담을 함께 나누며 걷는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29일은 스트레스를 줄이며 편안하게 걷는 힐링 걷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건강체크 부스 운영과 함께 달마고도 힐링 음악회가 열린다.

마지막 주인 4월 5일의 주제는 지속가능 걷기이다. 달마고도 구간 중 가족들이 함께 걷기 좋은 아동친화둘레길 걷기와 함께 '줍기 챌린지'가 펼쳐진다. /해남(전남)=이도호 기자 eogh7505@

포항시, 자호천·현내천·가사천 정비 본격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포항시는 지방하천 자호천, 현내천, 가사천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016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8년 상반기 완료될 것으로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하천 정비로 집중호우 시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자호지구 하천 정비

6.10km와 교량 12개소 재가설 ▲현내지구 하천 정비 4.70km와 교량 8개소 재가설 ▲가사지구 하천 정비 4.53km와 교량 12개소 재가설을 포함한다.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7일 죽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